



글로벌 임업동향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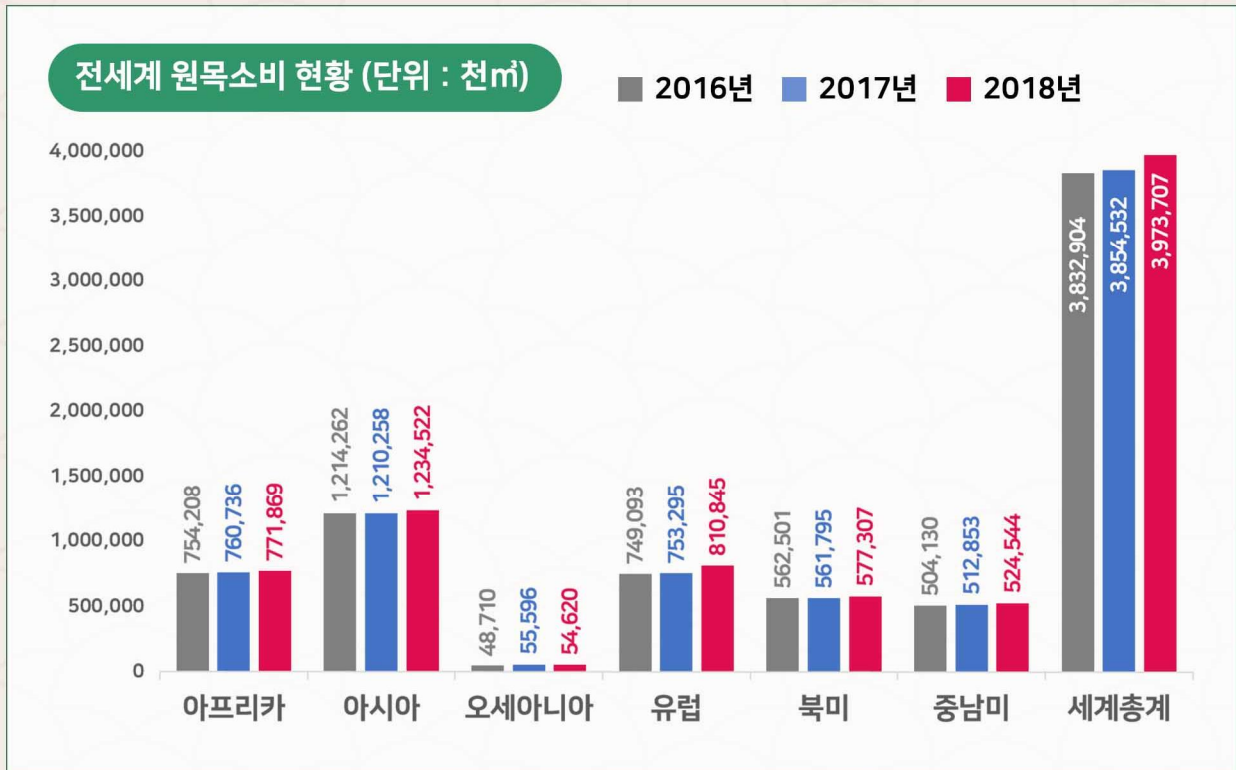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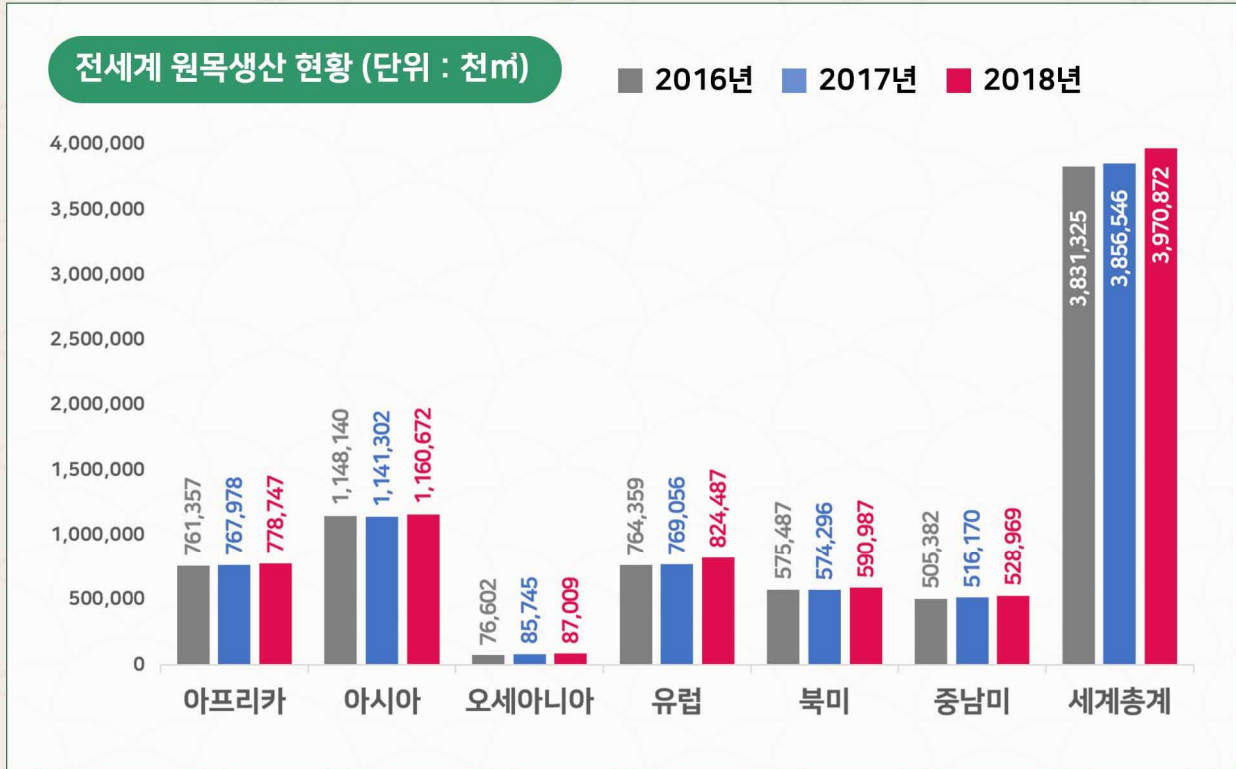
2020. 12.



글로벌 임업 동향(1/4)



전세계 원목생산 및 소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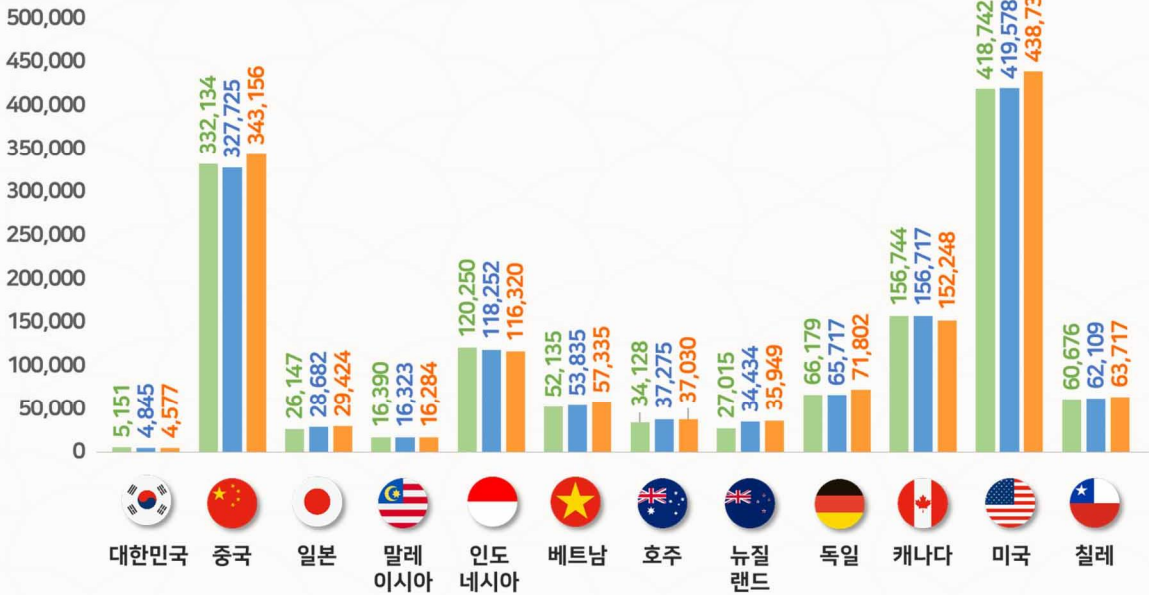
글로벌 임업 동향(2/4)



전세계 주요국 원목생산 및 소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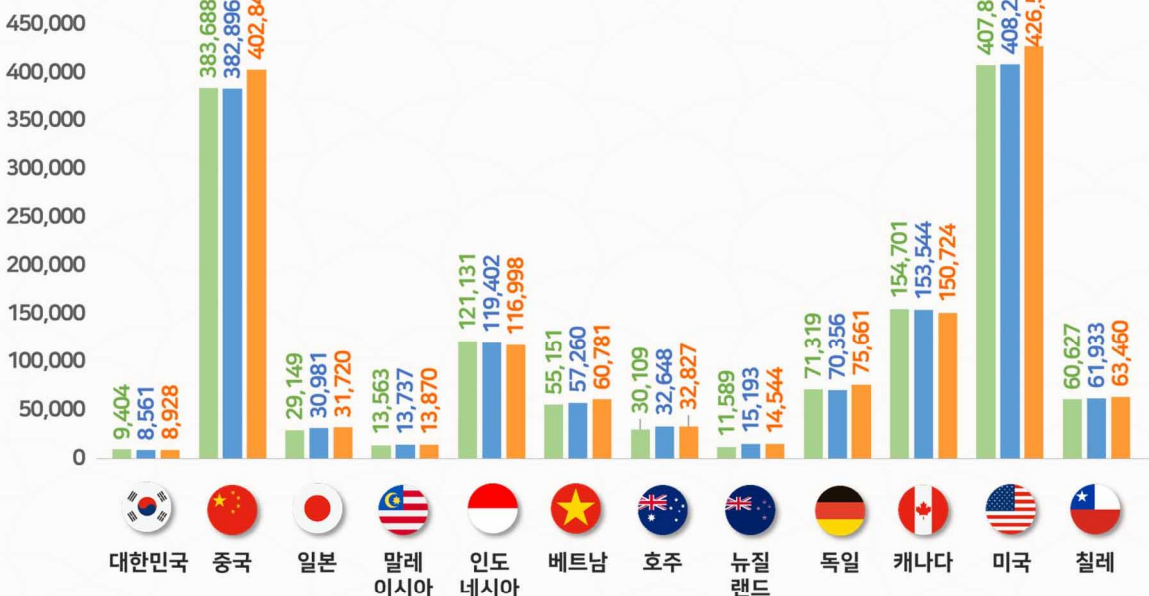
전세계 주요국 원목생산 현황 (단위 : 천m)

2016년 2017년 2018년



전세계 주요국 원목소비 현황 (단위 : 천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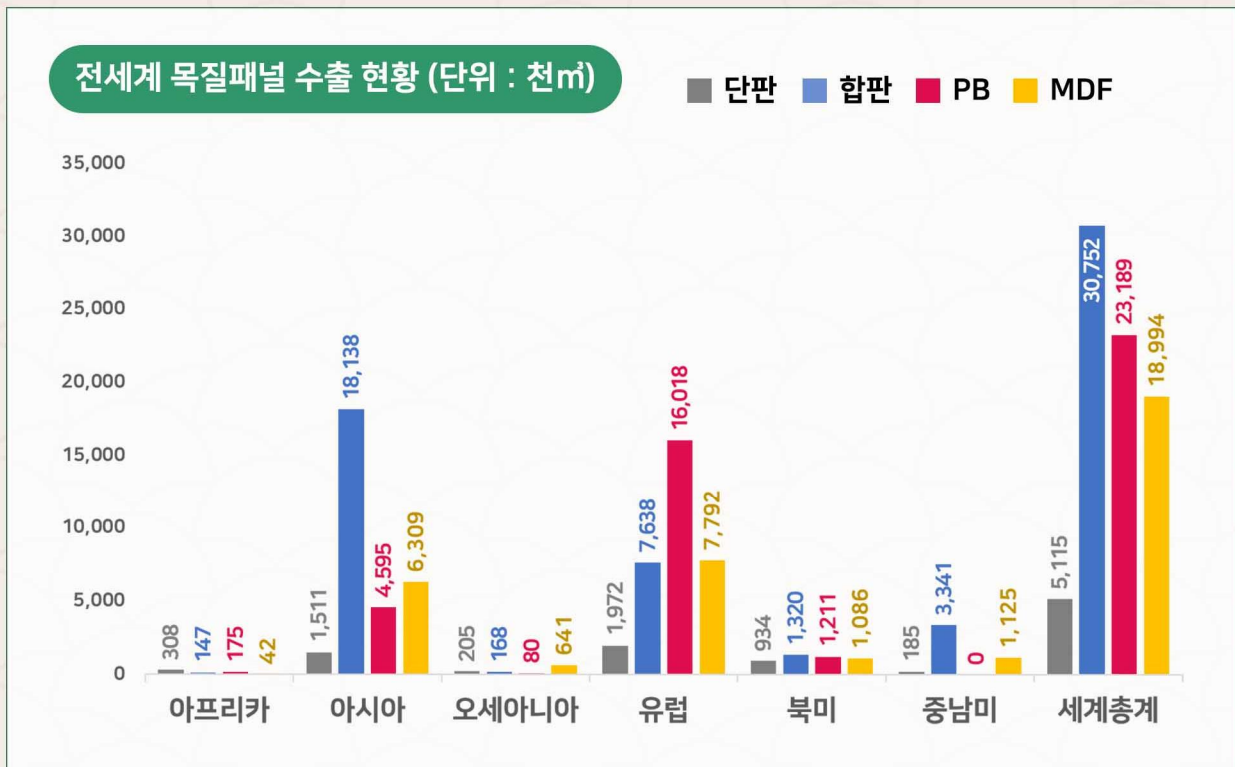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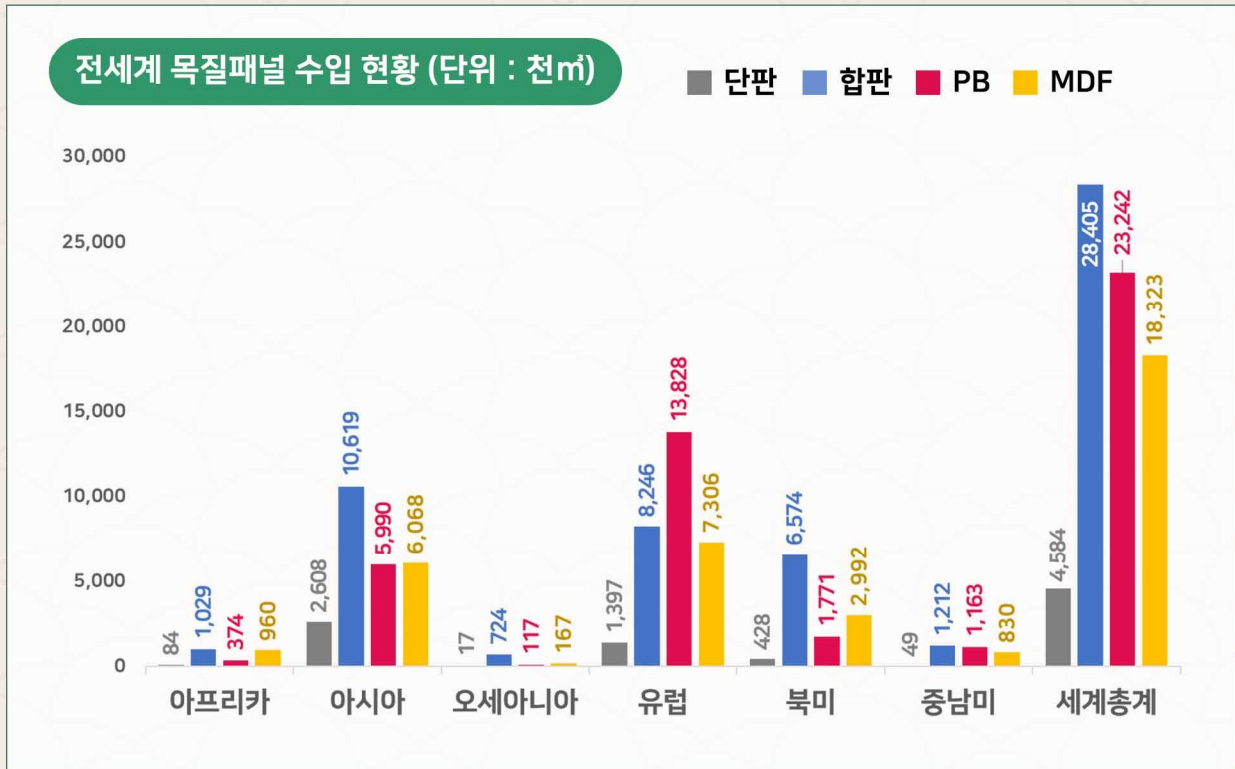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글로벌 임업 동향(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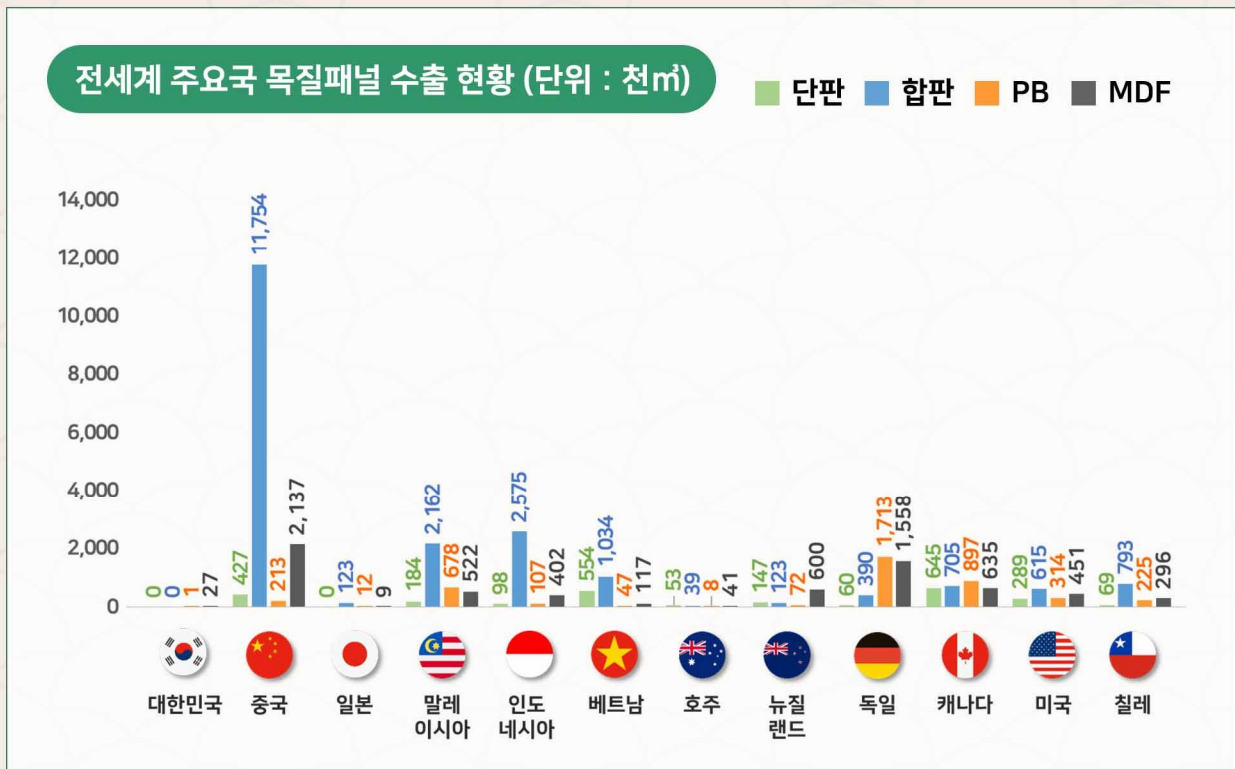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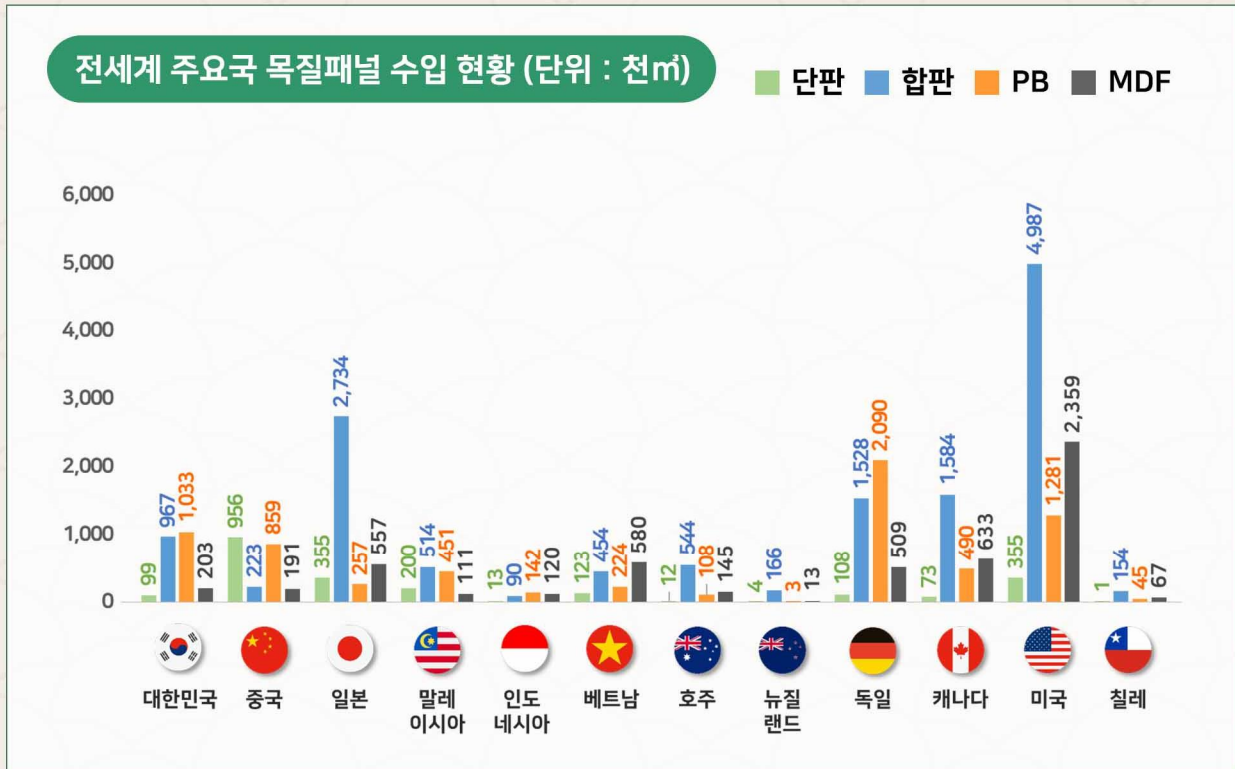
전세계 목질패널 수입 및 수출 현황(2018년)



글로벌 임업 동향(4/4)



전세계 주요국 목질패널 수입 및 수출 현황(2018년)





목차



1. 주요 국가별 기본현황 및 임업정책 동향	1
1-1. 중국	2
1-2. 일본	5
1-3. 인도네시아	7
1-4. 베트남	10
1-5. 말레이시아	13
1-6. 미국	15
1-7. 캐나다	17
1-8. 칠레	20
1-9. 호주	22
1-10. 뉴질랜드	24
1-11. 독일	26
2. 유럽 그린딜 추진에 따른 임업 전망	28
2-1. 유럽 그린딜 추진 배경 및 목적	28
2-2. 주요 정책 분야	29
2-3. 추진 현황	30
2-4. 투자계획	35
2-5. 임업전망	35

표 목 차

1-1. 전세계 주요국 원목생산 및 소비 현황	1
1-2. 전세계 주요국 목질패널 수입 및 수출 현황(2018년)	1
1-3. 중국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2
1-4. 일본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5
1-5. 주택 착공 현황	6
1-6. 인도네시아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8
1-7. 베트남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11
1-8. 말레이시아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13
1-9. 미국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16
1-10. 캐나다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18
1-11. 칠레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20
1-12. 호주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22
1-13. 뉴질랜드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24
1-14. 독일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26
2-1.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수단 추진 현황	30
2-2. 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31
2-3. 중소기업전략 3대 분야의 주요 내용	32
2-4. 순환경제 행동계획 세부정책의 추진 일정	33
2-5. 에너지 시스템 통합전략	34

그 림 목 차

1-1. 중국의 연도별 산림면적	2
1-2. 소매 가구 판매 현황	4
1-3. 일본의 연도별 산림면적	5
1-4.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산림면적	8
1-5. 베트남의 연도별 산림면적	11
1-6. 미국의 연도별 산림면적	15
1-7. 캐나다의 연도별 산림면적	18
1-8. 칠레의 연도별 산림면적	20
1-9. 호주의 연도별 산림면적	22
1-10. 뉴질랜드의 연도별 산림면적	24
1-11. 독일의 연도별 산림면적	26
2-1.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 분야	29
2-2. 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30

Part 2. 글로벌 임업 동향

1 주요 국가별 기본현황 및 임업정책 동향

■ [표1-1] 전세계 주요국 원목생산 및 소비 현황

구분	생산량(1,000m³)			소비량(1,000m³)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세계총계	3,831,325	3,856,546	3,970,872	3,832,904	3,854,532	3,973,707
아프리카	761,357	767,978	778,747	754,208	760,736	771,869
아시아	1,148,140	1,141,302	1,160,672	1,214,262	1,210,258	1,234,522
오세아니아	76,602	85,745	87,009	48,710	55,596	54,620
유럽	764,359	769,056	824,487	749,093	753,295	810,845
북미	575,487	574,296	590,987	562,501	561,795	577,307
중남미	505,382	516,170	528,969	504,130	512,853	524,544
대한민국	5,151	4,845	4,577	9,404	8,561	8,928
중국	332,134	327,725	343,156	383,688	382,896	402,848
일본	26,147	28,682	29,424	29,149	30,981	31,720
말레이시아	16,390	16,323	16,284	13,563	13,737	13,870
인도네시아	120,250	118,252	116,320	121,131	119,402	116,998
베트남	52,135	53,835	57,335	55,151	57,260	60,781
호주	34,128	37,275	37,030	30,109	32,648	32,827
뉴질랜드	27,015	34,434	35,949	11,589	15,193	14,544
독일	66,179	65,717	71,802	71,319	70,356	75,661
캐나다	156,744	156,717	152,248	154,701	153,544	150,724
미국	418,742	419,578	438,738	407,800	408,251	426,583
칠레	60,676	62,109	63,717	60,627	61,933	63,460

자료 : FAO(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표1-2] 전세계 주요국 목질패널 수입 및 수출 현황(2018년)

구분	수입(1,000m³)				수출(1,000m³)			
	단판	합판	PB	MDF	단판	합판	PB	MDF
세계총계	4,584	28,405	23,242	18,323	5,115	30,752	23,189	18,994
아프리카	84	1,029	374	960	308	147	175	42
아시아	2,608	10,619	5,990	6,068	1,511	18,138	4,595	6,309
오세아니아	17	724	117	167	205	168	80	641
유럽	1,397	8,246	13,828	7,306	1,972	7,638	16,018	7,792
북미	428	6,574	1,771	2,992	934	1,320	1,211	1,086
중남미	49	1,212	1,163	830	185	3,341	-	1,125
대한민국	99	967	1,033	203	-	-	1	27
중국	956	223	859	191	427	11,754	213	2,137
일본	355	2,734	257	557	-	123	12	9
말레이시아	200	514	451	111	184	2,162	678	522
인도네시아	13	90	142	120	98	2,575	107	402
베트남	123	454	224	580	554	1,034	47	117
호주	12	544	108	145	53	39	8	41
뉴질랜드	4	166	3	13	147	123	72	600
독일	108	1,528	2,090	509	60	390	1,713	1,558
캐나다	73	1,584	490	633	645	705	897	635
미국	355	4,987	1,281	2,359	289	615	314	451
칠레	1	154	45	67	69	793	225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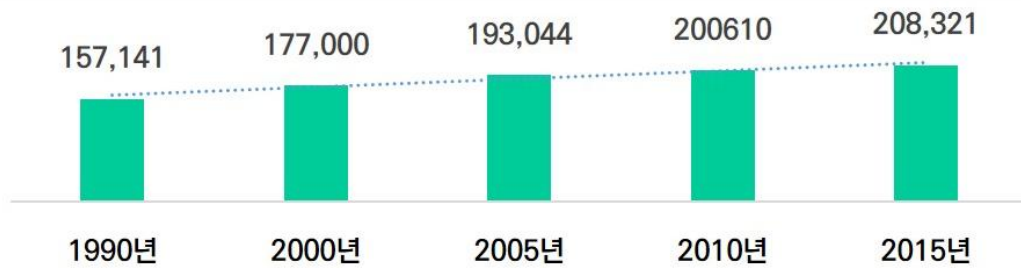
자료 : FAO(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공란은 미제출 국가

1-1. 중국

가. 일반현황

수 도	베이징
언 어	중국어
면 적	9억 6천만 1,080ha 세계4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14억 3,932만 3,774명 세계1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14조 3,429억 284만 2,915.9달러 세계2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1 인 당 G D P	1만 261.68달러 세계59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산림면적	208,321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22%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1] 중국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3] 중국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336,551	319,614	332,134	327,725	343,156
		소비량	387,744	368,897	383,688	382,896	402,848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175,534	172,386	169,169	166,014	162,919
		소비량	175,544	172,394	169,170	166,014	162,919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161,017	147,228	162,965	161,711	180,237
		소비량	212,202	196,503	214,519	216,882	239,930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1,673	1,664	1,651	1,637	1,624
		소비량	1,836	1,763	1,742	1,747	1,861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68,370	74,304	77,161	86,024	90,252
		소비량	95,060	100,603	108,395	123,194	127,606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3,000	3,000	3,000	3,000	3,000
		소비량	3,684	3,683	3,657	3,356	3,529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103,977	113,233	117,317	113,110	116,888
		소비량	92,848	102,777	106,121	101,941	105,357
PB	천m³	생산량	20,326	19,682	25,720	27,506	27,052
		소비량	20,490	19,792	25,957	28,115	27,698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56,826	57,688	59,044	56,306	55,152
		소비량	53,934	55,082	56,745	53,965	53,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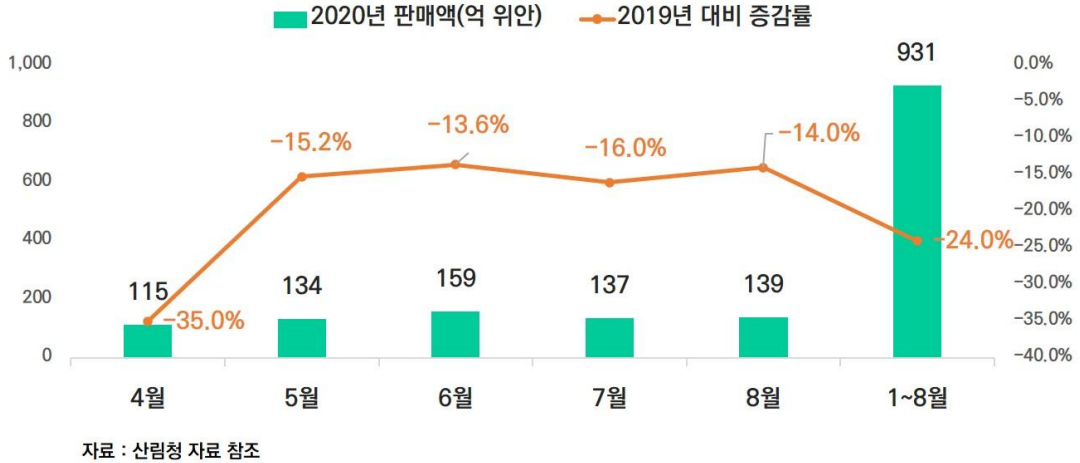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최대 목재 소비국으로서 1998년부터 본격적인 산림보호 정책을 취함에 따라 중국내의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세계 목재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목재소비량 1.7억^m³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0.7억^m³, 수입 물량이 1억^m³로 목재소비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세계에서 수출되는 원목·제재의 약 40%를 중국에 의한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목재 수입국이며 동시에 세계 목재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 중국은 천연 산림 보호 프로그램(Natural Forest Protec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천연림의 모든 상업적 벌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지역별로 벌채허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은 세계 제5위라는 광대한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 대부분이 농경지와 사막이기 때문에 산림률은 22%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림분포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목재생산 및 유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임업 동향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간 전파 증거가 발표된 1월 이후, 중국 정부는 발병이 시작된 도시 우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3년 사스의 영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코로나19로 중국 목재 가공업체들의 가동율이 3월에 60~70%, 4월에는 약 50%로 하락하였다.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제재목의 가격에 비해 원목 가격이 상승하여 제재소의 손익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하반기에도 계속되었다. 목재 가공업체들의 7월말까지 평균 가동률은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은 중국의 2020년 1분기 상업용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36개 도시에서 신축 주택의 분양이 38% 감소했다. 신축아파트의 건설 시장도 부진하여 건축용 제재목 수요도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소매점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고, 매장 수가 줄면서 전체 가구 및 목재 장식 재료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 1분기 가구 판매도 247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40.5% 감소하였다. 8월까지 누적 가구 판매는 931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 [그림1-2] 소매 가구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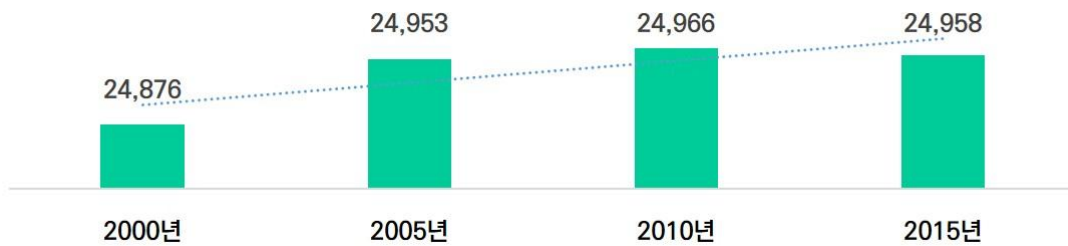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5월에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도구 사용, 국내수요 확대, 작업 생산 재개, 개혁 심화, 국가의 재개방 등 6개 부문을 목표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중관계에 따라 중국 공장 일부는 수출시장 사업 구조를 변경 또는 조정하거나 내수 시장 확대를 모색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목재 원자재의 생산 및 국제무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제조업체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구매처를 다각화해야 했으며, 글로벌 목재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산림 자원 개발 및 목재 조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한편 중국의 3개년 ‘푸른 하늘’ 행동계획 추진에 따른 대기 오염 통제 정책이 수립되어 2020~2021년 가을/겨울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 산둥, 허난, 산시 성에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기를 정화하려는 노력은 목재제품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 일본

가. 일반현황

수 도	도쿄
언 어	일본어
면 적	3,779만 7천ha 세계61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1억 2,647만 6,458명 세계11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5조 817억 6,954만 2,379.8달러 세계3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산림면적	208,321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22%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3] 일본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4] 일본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23,101	23,918	26,147	28,682	29,424
		소비량	26,731	26,677	29,149	30,981	31,720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1,843	2,806	4,458	6,037	6,248
		소비량	1,842	2,806	4,458	6,041	6,252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21,258	21,112	21,689	22,645	23,176
		소비량	24,889	23,871	24,690	24,940	25,468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25	18	17	16	15
		소비량	176	176	163	157	159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9,569	9,231	9,293	9,457	9,202
		소비량	15,751	15,168	15,520	15,660	15,036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60	60	60	60	60
		소비량	339	305	352	390	414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2,813	2,756	3,063	3,287	3,298
		소비량	6,398	5,709	5,851	6,190	6,108
PB	천m³	생산량	1,073	1,070	1,088	1,093	1,069
		소비량	1,324	1,345	1,375	1,326	1,314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389	397	419	415	396
		소비량	796	868	895	933	944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일본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함께 전쟁 후, 조성된 1천만ha의 인공림 등 산림의 유지와 자원의 이용, 목재생산을 양립하는 산림경영 확립을 위해 산림·임업 기본계획(2011~2030년) 수립하였다.
- 일본의 산림자원 보호정책의 핵심은 모든 산림은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 생활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각각의 산림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보전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하였다.

다. 임업 동향

- 올 상반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일본은 감염예방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회의를 권장했다.
- 국가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상사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많은 제조 시설이 근로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되었다. 이와 맞물려 주택 건설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협상이 금지됨에 따라 3월부터 모델하우스 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고 판매 촉진 행사도 취소되었다.
- 5월 주택 착공은 63,682건으로 리먼 쇼크 이후 2009년 5월부터 2011년까지와 동일한 수준이다. 당시의 평균 착공은 62,147건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월에는 전년 대비 12.8% 줄어든 71,101건으로, 5월에 발생한 코로나 비상사태가 바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월에는 전년보다 9.1% 감소한 69,101건이며, 2020년 1~8월까지의 총 착공건수는 538,028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 [표1-5] 주택 착공 현황

구분	1월 (건수)	2월 (건수)	3월 (건수)	4월 (건수)	5월 (건수)	6월 (건수)	7월 (건수)	8월 (건수)	1월-8월 누계 (건수)	2020/ 2019 (%)
total	60,341	63,105	70,729	69,162	63,682	71,101	70,232	69,101	538,028	89.0
자가소유	18,037	19,557	22,327	21,015	19,696	23,650	22,708	21,915	168,909	86.9
임대용	24,147	22,638	26,545	24,976	24,040	26,666	27,684	27,671	204,783	90.2
판매용	17,856	20,362	21,220	22,557	19,602	20,189	19,539	18,933	160,078	89.8
(콘도)	6,789	9,353	9,500	10,723	9,137	8,422	8,352	9,377	71,653	90.9
목조	33,849	35,824	40,139	38,840	35,632	41,218	40,450	38,410	304,362	88.2
조립식	8,546	8,649	9,624	8,078	8,269	10,382	9,662	9,582	72,794	85.7
2x4	7,013	7,285	8,668	7,717	6,778	7,280	7,835	7,485	60,061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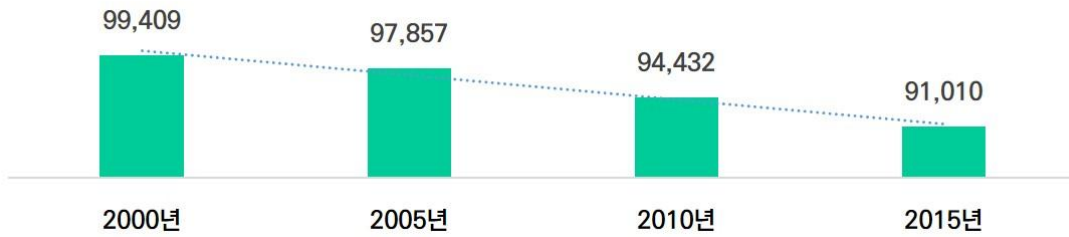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국유림의 2020년 계획을 6월에 공개했다. 목재 및 원목 판매 계획은 4,602,000m³로 2019년보다 2%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일본 국토교통부는 산림청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1조엔 규모로 대형 목조건물 시장을 확장하는 로드맵을 8월 말 공개하였다. 대형 목조 건물이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은 제외되며, 2018년 현재 시장규모는 5천억 엔이며 2030년까지 두 배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의 대형 건물을 위한 높은 내화성과 내구성을 갖춘 목재 재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고층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 샘플을 만들어야 하며, 설계 및 실제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일본의 목조주택 건설업체 협회는 35개 건설자재 회사들과 함께 목조주택의 수명을 약 현행 30년에서 85-90년까지 내구성이 높은 목조주택을 개발할 계획이다. 협회는 짧은 수명의 원인인 지붕 및 외벽과 같은 주택의 외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3개 회사들이 목조건물 외피를 만들어냈다. 현재 개발된 약 40-50년 수명의 지붕재를 사용할 경우 단 1회만 리모델링하면 수명이 80-90년이 될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3. 인도네시아

가. 일반현황

수 도	자카르타
언 어	인도네시아어
면 적	1억 9,168만 2천ha 세계14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2억 7,352만 3,621명 세계4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1조 1,191억 9,078만 752.8달러 세계16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종 교	이슬람 87%, 기독교 7%, 카톨릭 3%, 힌두교 2%, 불교 1%
산림면적	91,010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50%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4]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6] 인도네시아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124,455	122,318	120,250	118,252	116,320
		소비량	124,621	122,816	121,131	119,402	116,998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50,414	48,277	46,209	44,211	42,279
		소비량	50,413	48,274	46,208	19,979	42,278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74,041	74,041	74,041	74,041	74,041
		소비량	74,209	74,548	74,992	75,192	74,720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664	664	664	664	664
		소비량	344	227	304	238	153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4,169	4,169	4,169	4,169	4,169
		소비량	3,847	3,943	3,947	3,945	3,919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761	761	761	761	761
		소비량	764	742	727	688	676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3,800	3,800	3,800	3,800	3,800
		소비량	1,127	1,132	1,258	1,342	1,315
PB	천m³	생산량	125	125	125	125	125
		소비량	551	410	399	368	161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350	450	500	500	500
		소비량	166	179	200	295	218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 진출했고, 38만 9000헥타르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
-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산림 관리제도는 산림 거버넌스 및 산림관리계획 및 산림 이용에 관한 산림법 No 41/1999와 정부 규정 No. 6/2007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천연림 자원보존의 경우에는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No.5/1990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림투자는 인가 또는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현지허가권 소유주 또는 산림관리기관과의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가능하다. 임업 투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산림법 No. 41/1999로 산림관리 및 산림관리 기획과 산림이용에 대한 정부 규정 No. 6/2007, No. 3/2008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투자 인허가는 오직 생산림과 보호림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연보전림(HK) 지역의 경우 사냥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투자 허가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보전림에 경제적 잠재성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는 현지 지역관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산림부는 토지 및 산불 통제 목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기업의 운영 허가권을 이용 중지 내지는 철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탄지 및 천연림 신규 허가권 발급 정책 금지, 원목수출 금지(가공 목재 수출만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임업 동향

- 인도네시아 목재산업은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가구 및 공예 산업 협회(HIMKI)에 따르면, HIMKI에는 3,500개의 기업 회원이 있으며, 각 회사의 공장에는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현재 약 70%가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목재산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가구산업은 5대 산업 중 하나로 가구 및 공예 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재 수출에 필요한 서류 의무를 중단하거나 단순화했다. 여기에는 목재 제품에 대한 목재 합법성 검증시스템(SVLK), 식물 위생 인증 및 원산지 인증에 대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료 수입 규제완화 조치도 검토하였다.
-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6월을 넘어서면서 목재 부문의 수출실적이 개선되자 목재 산업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었다. 전체 수출의 증가는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2020년 1~5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미

국으로의 가구 수출은 528백만 달러로 이 수치는 2019년 동기 385백만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목재제품의 EU 수출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원인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제품은 FSC 표시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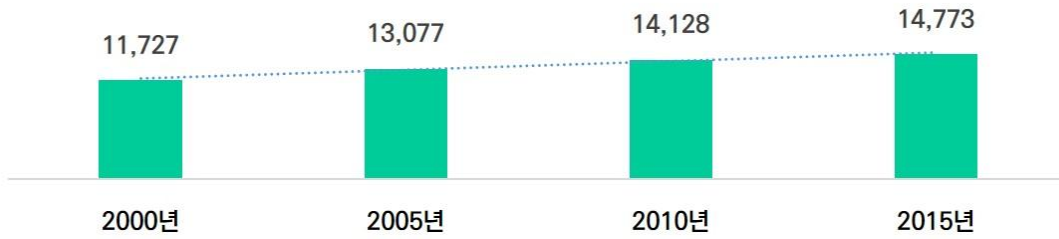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개발그룹(SDG)은 인도네시아에서 책임 있는 산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도구인 국가산림관리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표준은 산림관리 협의회(FSC)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1일 부로 시행된다.
- 지난 11월 15일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에 따라 재정 정책국에서는 2032년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 생산이 0.0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목재, 제지, 전자 산업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지난 11월 25일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 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1-4. 베트남

가. 일반현황

수 도	하노이
언 어	베트남어
면 적	3,312만 3천ha 세계65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9,733만 8,583명 세계15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2,619억 2,124만 4,843.2달러 세계45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산림면적	14,773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45%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5] 베트남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7] 베트남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124,455	122,318	120,250	118,252	116,320
		소비량	124,621	122,816	121,131	119,402	116,998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소비량	19,994	19,999	20,002	19,999	19,979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32,735	33,335	32,135	33,835	37,335
		소비량	34,558	34,982	35,148	37,281	40,802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414	414	414	414	414
		소비량	391	386	378	357	344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6,000	6,000	6,000	6,000	6,000
		소비량	7,373	7,092	7,027	7,262	7,473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1,050	1,050	1,050	1,052	1,052
		소비량	42	86	380	624	621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395	600	850	1,050	1,050
		소비량	224	301	314	396	470
PB	천m³	생산량	250	250	250	250	250
		소비량	362	433	412	409	427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160	160	160	160	160
		소비량	349	683	611	642	623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2019년 베트남은 향후 목재 및 임산물 가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시장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목재가공산업 개발, 합법적인 원자재 공급 활용, 진보된 기술과 최신 장비 활용, 생산을 위한 환경기준 확보 등이다.
- 또한 정부는 향후 10년 간 목재 및 임산물 가공산업이 생산과 수출측면에서 베트남의 핵심 경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베트남산 목재 및 임산물에 대한 상표를 개발하여 베트남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적인 목재 가공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베트남의 임업법은 2017년 11월 15일에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004년 산림보호 및 개발법을 대체하여 2019년 1월 발효되었다. 개정된 법에서 임업은 특별한 경제기술분야로 간주되어 임업관리, 보호, 개발 및 활용에서 임산물 가공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시장 방향성과 국제 통합에 따른 체인 기반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산림의 공공, 기업, 가계, 개인 및 지역 사회별 소유권을 명시한다. 이에 공유림은 베트남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다.

다. 임업 동향

- 베트남은 올해 중반까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1%가 증가했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준 베트남은 글로벌 목재 제품 수출국가 중 상위 5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산 목재 및 임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대한민국이 포함된다.
- 최근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은 무역장벽에 직면하였다. 베트남의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출은 수입국이 부과하는 다양한 반덤핑, 상계 및 우회 조치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보호 무역 조치에 직면하고 있다.
-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청은(ITA)은 미국의 목재 합판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의 합판 수입을 통제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CVD) 규칙을 우회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의 주요 제품이 베트남 합판으로 바뀌어 미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베트남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즉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목재 제품에 불법 목재를 사용하는 것과 불공정한 통화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지난 9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결을 내렸다. 9개월간 조사 후 내린 최종판결에서 대한민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 베트남 합판 제품에 대해 5년간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베트남산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고용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반덤핑 관세를 요구했다.

1-5. 말레이시아

가. 일반현황

수 도	쿠알라룸푸르
언 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면 적	3,303만 4,500ha 세계66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3,236만 5,998명 세계45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3,647억 151만 7,787.8달러 세계36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전형적인 열대우림형
종 교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등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산림면적	1,873,000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58%를 차지

나. 산림현황

- 2015년 기준 말레이시아 총 산림 면적은 187,300만ha로 전체 토지의 5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우, 491만ha, 사바는 445만ha, 사라왁은 937만ha를 기록하고 있다.

■ [표1-8] 말레이시아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20,405	16,992	16,390	16,323	16,284
		소비량	17,230	14,025	13,563	13,737	13,870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2,619	2,575	2,534	2,494	2,455
		소비량	2,618	2,568	2,529	2,491	2,454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17,786	14,417	13,856	13,829	13,829
		소비량	14,613	11,457	11,053	11,246	11,415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29	29	29	29	29
		소비량	13	11	-	-	-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4,463	3,521	3,423	3,246	3,394
		소비량	2,707	1,779	1,669	1,330	1,687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818	690	553	577	573
		소비량	794	718	563	645	589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3,819	3,185	3,029	2,909	2,502
		소비량	1,152	911	814	843	854
PB	천m³	생산량	163	127	98	102	82
		소비량	7	-	11	67	129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1,460	1,460	1,460	1,460	1,460
		소비량	1,046	1,106	1,105	1,104	1,049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74(2)조에 따라 산림은 주 관할 사항이다. 말레이시아 연방 내 모든 주들은 토지 및 산림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림자원의 관리, 경영, 사용 및 할당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임지의 활용 및 처분 권한도 포함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임업분야는 국가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업분야는 말레이시아 수출의 주요 수입원이며 고용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목재 및 목제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가로서 자유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의 경우,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금지한 원목 및 고무나무 제재목 수출품을 제외하고는 수출 교역에 대한 추가적 금지정책은 없다. 말레이시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교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CITES) 인증서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CITES 서명국으로서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1년 8월 라민(ramin) 원목 및 제재목 등의 수출입 금지 정책을 제정하였다.

다. 임업 동향

-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봉쇄하기 위해 3월 이동통제명령(Movement Control Order : MCO)을 시행하면서 산업 생산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말레이시아 제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제명령으로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해외 및 국내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00억RM 규모의 ‘프리하틴(Prihatin) 부양 패키지’를 즉시 실시했다. 다양한 부처,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 간의 수많은 상담이 이동통제명령 기간 동안 진행되어 승인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제하고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긴급행동지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500개 이상의 목재 회사가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70% 이상이 가구 및 성형 제조업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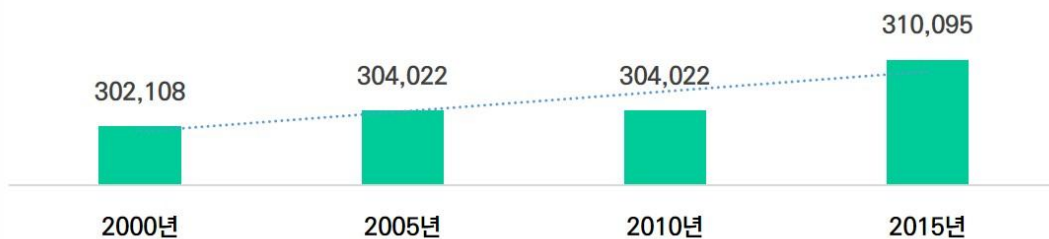
- MCO는 단계적으로 확장되었고, 2020년 5월 4일 정부는 2020년 6월 9일까지 발효된 조건부 이동 통제 명령(Conditional Movement Control Order: CMCO)을 시행했으며, 목재 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부문이 규정된 SOP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목재 부문은 MCO 및 CMCO 동안 제대로 가동되었으며 제조업체의 90%가 운영을 재개하여 60% 이상이 제품 수출을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목재 기반 제조업체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 및 자동화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목재 부문에 대해서 빠른 대응과 강력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코로나 대유행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MTC는 목재 산업에 대한 역할과 의무에 따라 현재 및 Covid-19 이후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운영 모델과 활동을 변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1-6. 미국

가. 일반현황

수 도	워싱턴 D.C
언 어	영어
면 적	9억 8,315만 1천ha 세계3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3억 3,100만 2,647명 세계3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21조 4,277억 달러 세계1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미국 본토 대부분 온대 또는 냉대
산림면적	310,095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34%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6] 미국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표1-9】 미국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398,693	399,023	418,742	419,578	438,738
		소비량	385,460	388,433	407,800	408,251	426,583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41,881	44,345	62,156	64,370	70,549
		소비량	41,701	44,125	62,013	64,088	70,250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356,812	354,678	356,586	355,208	368,189
		소비량	343,759	344,308	345,787	344,163	356,333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982	982	852	852	852
		소비량	1,048	1,066	942	946	941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75,833	76,362	78,165	80,374	82,112
		소비량	91,133	94,513	99,752	100,398	101,397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400	400	400	400	400
		소비량	664	565	476	478	466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11,151	10,972	11,239	11,600	11,490
		소비량	13,195	14,582	15,418	15,598	15,862
PB	천m³	생산량	4,129	4,301	4,129	4,129	3,991
		소비량	4,777	5,197	5,047	4,960	4,958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3,001	2,964	3,001	2,988	3,048
		소비량	4,096	4,185	4,211	4,985	4,956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미국은 광대한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기후에 속하는데다가 평지도 넓어 자연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를 이룬다.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율은 불과 3%이며, 취업인구 비율에서도 4.3%에 불과하나, 그 생산규모는 세계 유수의 농업국임을 입증한다. 경작지·삼림지역의 면적은 약 2억ha로 세계 제1위, 목초지는 2.4억ha로 오스트레일리아·러시아연방에 이어 세계 제3위이다.
- 임업은 태평양 연안 북부의 워싱턴주·오리건주 및 로키산맥 지역이 성하며, 용재 생산량은 세계 25%, 펄프 생산은 세계 37%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제1위이다. 조림사업에 의한 2차림은 극히 적고, 자연림의 벌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삼림의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다. 임업 동향

- 연방주택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주택 가격 지수(HPI)에 따르면 코로나 19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가격이 2019년 2사분기에

서 2020년 2사분기까지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4월에 비해 5월에 주택 가격이 약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지역경제가 활동이 재개되고 거래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7월에 가격이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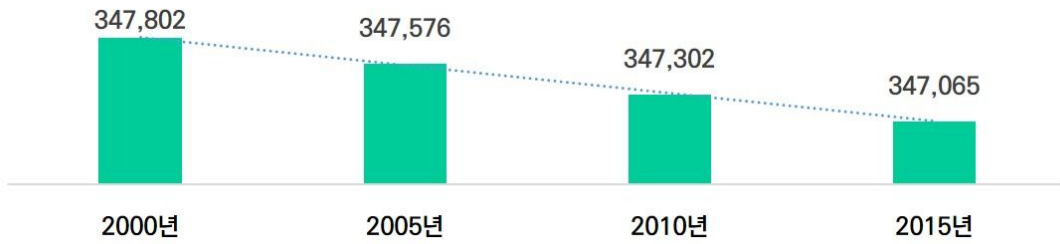
- 전국 주택건축협회가 개발한 주택건설지리인덱스(HBGI)는 코로나19가 수많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쳤지만 주택은 4월의 슬럼프로부터 신속히 반등하면서 경제적 폭풍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대도시 권역이 더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인 가구 주택 구입자들은 인구가 덜 밀집된 지역인 교외에서 주택을 구했다.
- 최근 미국에서는 국제건축코드(IBC)의 변경으로 최대 18층까지 목재 건축 프로젝트를 허용했다. 이런 움직임은 조만간 다른 국가들도 시류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목재는 적응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립식 건축 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모듈형 건축과 조립식 건축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시장의 가치가 2023년까지 15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기술과 재료가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인기의 상승과 하락은 있지만 목재는 항상 건설의 중추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모든 이들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설계와 같은 것들을 선망하는 한 천연자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수년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1-7. 캐나다

가. 일반현황

수 도	오타와
언 어	프랑스어, 영어
면 적	9억 8,797만 5천ha 세계2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3,774만 2,157명 세계39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1조 7,364억 2,562만 9,520달러 세계10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온난한 기후부터 북극성 기후까지 매우 다양함
산림면적	347,065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35%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7] 캐나다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10] 캐나다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 ³	생산량	153,464	155,997	156,744	156,717	152,248
		소비량	151,053	154,516	154,701	153,544	150,724
연료 (fuel wood)	천m ³	생산량	4,639	4,639	2,050	1,534	1,534
		소비량	4,662	4,602	1,993	1,469	1,499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 ³	생산량	148,825	151,358	154,694	155,183	150,714
		소비량	146,391	149,914	152,707	151,074	149,225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	-	-	-	-
		소비량	24	20	23	17	44
제재목 (Sawnwood)	천m ³	생산량	43,351	47,115	49,724	47,861	46,858
		소비량	15,141	18,090	17,818	17,994	18,404
단판 (veneer sheets)	천m ³	생산량	520	610	670	760	770
		소비량	102	119	167	163	198
합판 (plywood)	천m ³	생산량	1,810	1,929	2,205	2,253	2,225
		소비량	2,914	2,773	2,807	3,328	3,104
PB	천m ³	생산량	1,710	1,722	1,761	1,745	1,720
		소비량	1,738	1,567	1,408	1,542	1,313
섬유판 (MDF)	천m ³	생산량	849	970	955	1,039	1,096
		소비량	718	796	1,130	1,047	1,093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캐나다의 임산업은 다른 자원 부분보다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주요 자원보다 많은 직업 창출과 무역 균형 등 부가가치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숲은 캐나다인에게 환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함.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 압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의 보전을 보장하는 산림 경영의 개념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SFM)을 개발하였다.

다. 임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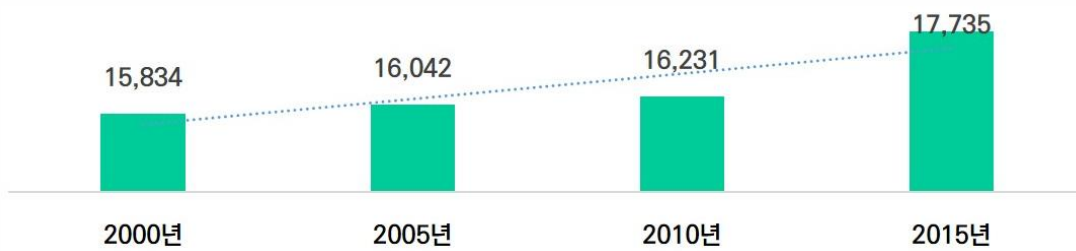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 거의 100만이 실업수당 청구를 신청하는 등 캐나다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억제되면서 3월의 주택 분양은 2월 대비 14.3%가 감소했다.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550만 명의 캐나다 근로자가 실직 또는 결근 등 봉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대유행 전 5.6%에서 12.3%로 증가했으나 일자리를 잃었지만 주택개량 지출은 5월까지 5%만 감소했다.
- 캐나다임산물협회(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FPAC) 사장 겸 CEO인 데릭 니버(Derek Nighbor)는 1분기의 전체적인 목재시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40%의 육박하는 가격인하를 경험하면서 많은 제재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폐쇄로 인해 수천건의 작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펄프 공장 근로자와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분기에 서부지역에서는 중국 수출 물량과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원목판매량과 평균 판매 실적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목재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코로나19 경제적 영향으로 4월에 급격히 감소했지만 분기 후반에 반등했다.
- 8월 무디스는 글로벌 제지, 포장 및 임산물 산업에 대한 총체적 전망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이렇듯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무디스가 전세계 주요한 41개 제지 및 임산물 기업의 통합 영업이익이 향후 12개월간 6%~8%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후퇴로부터 빠져 나오는 2021년에는 대부분의 제지 및 임산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8. 칠레

가. 일반현황

수 도	산티아고
언 어	에스파냐어
면 적	7,567만 ha 세계36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1,911만 6,209명 세계63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2,823억 1,815만 9,744.7달러 세계42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기후 등 다양한 기후
종 교	카톨릭(54%), 개신교(14%), 무교(25%), 기타 종교(7%)
산림면적	17,735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8] 칠레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11] 칠레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58,703	59,757	60,676	62,109	63,717
		소비량	58,675	59,723	60,627	61,933	63,460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16,122	16,122	16,122	16,122	16,122
		소비량	16,122	16,122	16,122	16,122	16,122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42,581	43,635	44,554	45,987	47,595
		소비량	42,553	43,601	44,505	45,811	47,338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246	245	244	243	242
		소비량	285	285	281	280	283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7,999	8,372	8,455	8,151	8,307
		소비량	4,615	5,426	5,167	5,060	5,236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86	139	124	104	114
		소비량	42	64	56	35	46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1,100	1,355	1,356	1,334	1,447
		소비량	632	744	712	800	808
PB	천m³	생산량	535	528	502	527	568
		소비량	359	401	347	380	389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891	940	896	918	956
		소비량	591	694	676	675	727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칠레의 산림부문은 국제시장으로의 수출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7년 기준, 산림부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약 26,696억 칠레 페소로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8% 차지하고 있다. 칠레 조림지 면적은 2018년 12월 약 240만ha로 추정된다. 2017년 목재 수요는 2016년에 비해 3.1%, 2015년에 비해 5.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요가 가장 높은 수종은 라디아타 소나무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3,050만m³이 소비되었고, 그 다음은 유칼립투스(1,450m³)이다.

다. 임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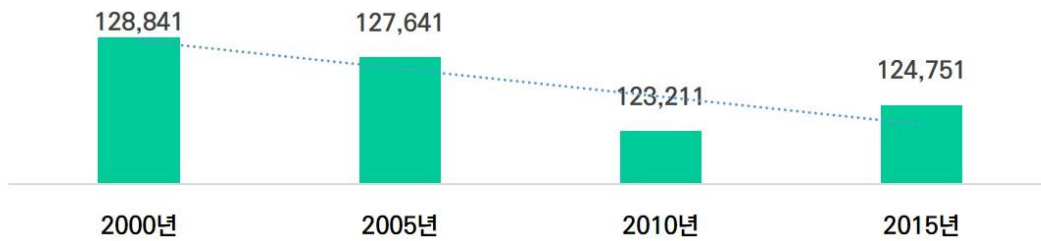
- 지난 4월 칠레의 산림수출은 전달인 3월과 비교해 5.7%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별 금액이 계속 낮아 2019년 월평균 471.8백만 달러보다 적은 수치이다. 4월까지의 누계는 153.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낮았으며, 2018년 대비 27.5% 낮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각국에서 바이러스의 영향이 날짜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 및 중기적으로 시장 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칠레 임산물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모두 수요가 감소하였다. 상반기 누계가 23.98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0%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 임업 수출에서는 수출 제품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분기 칠레의 라디아타 소나무 합판 수출은 98,31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다. 이는 2017년 4분기에 기록한 89,733톤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 한달 동안 임산물 수출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 13.6% 감소했다. 임산물 수출은 7월에 반등을 기록한 후 8월에 다시 전월 대비 3.9%, 전년대비 15.9%를 감소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8월까지의 대부분의 주요 제품들이 해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호주

가. 일반현황

수 도	캔버라
언 어	영어
면 적	7억 7,412만 2천ha 세계6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2,549만 9,881명 세계55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1조 3,926억 8,058만 9,329.1달러 세계14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온대기후 등 다양한 기후
종 교	기독교(67%), 무종교(26%), 기타(7%)
산림면적	124,751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9] 호주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12] 호주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30,012	31,386	34,128	37,275	37,030
		소비량	27,408	28,014	30,109	32,648	32,827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4,745	4,096	4,045	4,132	4,091
		소비량	4,738	4,071	3,952	3,969	4,068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25,267	27,290	30,083	33,143	32,939
		소비량	22,670	23,943	26,157	28,678	28,759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24	23	24	24	24
		소비량	41	37	38	42	44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4,888	5,085	5,104	4,727	4,635
		소비량	5,247	5,505	5,474	5,082	5,194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125	125	125	125	125
		소비량	123	87	94	60	84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153	171	151	151	156
		소비량	453	469	516	519	661
PB	천m³	생산량	877	955	968	968	968
		소비량	937	1,016	1,020	1,055	1,068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500	574	593	593	593
		소비량	477	581	597	625	697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호주의 산림 관리는 1992년 국립 산림 정책 선언 (National Forest Policy Statement, NFPS)에 근거한다. NFPS는 1992년 12월에 호주 정부와 모든 주 및 준주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995년 4월에 태즈메이니아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다. NFPS 서명국으로서 호주,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모든 호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다. 임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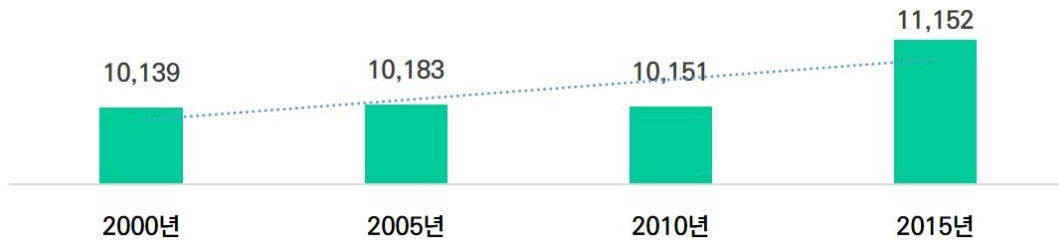
- 웨스트백 은행(Westpac Banking Corp)에 따르면 4월 호주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한을 설정하여 많은 지역을 폐쇄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47년 역사상 최대치로 하락했다.
-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호주 농업, 임업 및 어업 무역에 대한 ABARES(농림자원 경제과학청)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호주 농업 부문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주 최대의 제재소 회사인 AKD Softwoods는 건설 자재 수요 감소로 인해 4개 제재소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코로나가 주택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8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목재 제품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휴가를 떠나야 했다. 마스터 건축협회(Master Builders Associ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결과로 향후 12개월 동안 최대 43,000개의 신축 주택 건설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 목재 산업은 호주에 건설된 신축 주택과 다세대 및 상업용 건물의 상당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 제품 대부분을 공급한다.
- 호주 정부의 홈빌더 프로그램은 주택건설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과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 면세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홈빌더 프로그램은 적격한 소유자(점유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신규주택을 건설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10. 뉴질랜드

가. 일반현황

수 도	웰링턴
언 어	영어, 마오리어
면 적	2,677만 1천ha 세계73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482만 2,233명 세계125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2,069억 2,876만 5,543.9달러 세계52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서안해양성기후
산림면적	11,152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38%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10] 뉴질랜드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13] 뉴질랜드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29,196	28,954	27,015	34,434	35,949
		소비량	12,634	12,559	11,589	15,193	14,544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	-	-	-	-
		소비량	-	-	-	-	-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29,196	28,954	29,015	34,443	35,949
		소비량	12,635	12,559	11,589	15,193	14,545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	-	-	-	-
		소비량	2	1	2	2	2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3,602	4,038	4,114	4,651	4,414
		소비량	1,942	2,321	2,455	2,896	2,548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662	620	520	497	484
		소비량	521	497	397	355	341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353	395	436	411	357
		소비량	372	333	383	379	400
PB	천m³	생산량	152	149	154	158	149
		소비량	76	78	89	80	80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693	720	766	777	792
		소비량	187	144	174	211	204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뉴질랜드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는 섬나라로서 지형이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이 많다. 북섬은 면적의 63%가 산지와 구릉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화산이 많다. 전국토 중 경지는 14%, 초원은 50%, 산림지대는 28%를 차지한다. 북섬의 오클랜드 반도에는 뉴질랜드 특유의 카우리(kauri) 소나무와 리무(Rimu)·마타이(matai)·토타라(totara) 등의 원시림이 산악지대에 산재한다. 남섬에는 해안림이 무성하고 종려나무, 키 큰 고사리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라 불리는 포후투카와(pohutukawa) 등이 자란다.

다. 임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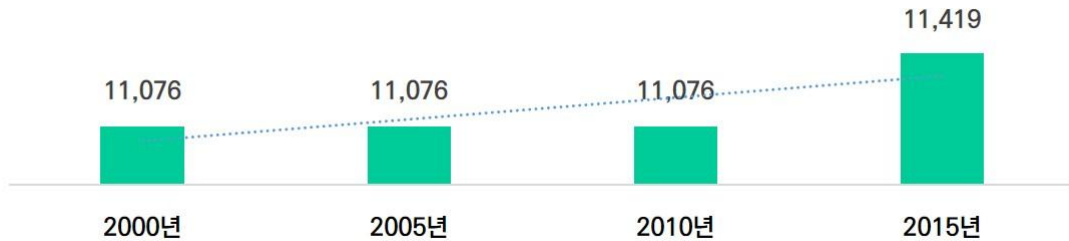
- 목재 가공업체들은 코로나19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목재 조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 및 공공건물에서 목조 건축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부양하며, 더 큰 내수 가공산업의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설 시장에서 목재의 점유율이 25% 증가하면 연간 150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구조용 목재를 비롯하여 기타 구성요소의 수출이 약 723,000㎡ 증가할 수 있다. 수입 시멘트와 강철을 목재로 교체하면 매년 약 5억 달러의 수지 균형을 개선하는 한편, 증가한 수요는 임업, 가공, 운송 및 선적에서 약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 봉쇄로 여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이 폐쇄됨에 따라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 뉴질랜드 국내 시장에서는 주택 건설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서 목재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지만 노동 시장이 약화됨에 따라 연말에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원목의 글로벌 수요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1. 독일

가. 일반현황

수 도	베를린
언 어	독일어
면 적	3,575만 8천ha 세계62위 (2017 국토교통부, FAO 기준)
인 구	8,378만 3,945명 세계19위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 D P	3조 8,456억 3,003만 823.5달러 세계4위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기 후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산림면적	11,419천ha (2015년 FAO 세계산림자원 평가 기준) 국토면적의 약 33%를 차지

나. 산림현황



■ [그림1-11] 독일의 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 천ha)

■ [표1-14] 독일의 목재류 생산 및 소비 현황

종류	단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목 (round wood)	천m³	생산량	68,996	68,999	66,179	65,717	71,802
		소비량	74,656	74,456	71,319	70,356	75,661
연료 (fuel wood)	천m³	생산량	23,610	23,345	22,162	22,388	21,874
		소비량	24,240	23,803	22,552	22,683	22,160
산업용재 (Industrial Roundwood)	천m³	생산량	45,386	45,654	44,017	43,329	49,928
		소비량	50,416	50,652	48,767	47,853	53,501
목탄 (Wood Charcoal)	m/t	생산량	2	2	30	30	30
		소비량	211	215	215	230	238
제재목 (Sawnwood)	천m³	생산량	21,772	21,490	22,197	23,168	23,743
		소비량	19,001	19,314	19,537	20,055	20,243
단판 (veneer sheets)	천m³	생산량	98	90	87	89	88
		소비량	145	138	161	142	136
합판 (plywood)	천m³	생산량	148	108	114	100	118
		소비량	1,207	1,186	1,223	1,247	1,309
PB	천m³	생산량	5,665	5,531	5,618	5,759	5,757
		소비량	6,175	6,032	6,046	6,046	5,935
섬유판 (MDF)	천m³	생산량	1,503	1,508	1,502	1,510	1,454
		소비량	542	404	376	457	405

자료 : FAO (2018 임산물생산통계연감)

- 독일은 국토면적의 1/3이 산림이며, 매년 4000만m³의 목재를 생산하여 자국수요의 2/3를 충당하고 있다. 그 동안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전 산림면적의 64%에 달하는데, 주요 원인은 발전소·난방·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성비이다.

다. 임업 동향

- 코로나 위기는 유럽의 제재소 산업과 목재 무역에 지역과 특정 제품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및 프랑스의 건축 활동 중단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당 국가의 건설 제품 제조업체와 제품을 수출하는 공급업체는 당시 매출이 감소했다. 향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기간과 강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 코로나 위기로 건설부문의 침엽수 제재목 판매는 대부분 부진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봉쇄하는 조치와 다양한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침엽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지난 3, 4월 유럽 전역에서 생산량의 10~15%가 감소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건설 및 건축 관련 제품과 DIY 부문 건설 활동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어 납품이 중단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팔레트 및 포장 산업에서의 판매량은 유럽에서 중단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 코로나 위기의 영향과 신선한 목재 벌채 작업에서 고품질의 제재목 종류를 공급하는 것은 독일 팔레트 및 목재 포장 산업의 주요 과제이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중국에서 취한 조치는 독일 수출과 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들마다 상이한 코로나19 감염률로 인해 국가별로 대응조치의 내용도 각각 다르며, 이것은 독일의 목재 관련 사업체들의 수출입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유럽 그린딜 추진에 따른 임업 전망¹⁾

2-1. 유럽 그린딜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전세계적으로 온난화, 이상기온, 가뭄, 홍수 등 기후 재난이 증가하면서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 중립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국가는 2015년에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의 후속일정으로 2020년 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준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9년 12월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이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전략(New Growth Strategy)’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안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모든 EU 회원국 경제 구조적 변화를 통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net CO2 emission)을 제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았다.
-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과 기후변화 대응기조를 제시하였고, 2020년 1월 정책추진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계획하였다.
- EU는 또한 자연을 보존하고 개선하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위험으로부터 EU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특히 경제와 산업의 친환경적 구조 변화에 따르는 전환비용의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소외지역, 사양산업, 관련 종사자 등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유럽그린딜이 한국 그린 뉴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자료 및 European Commission 자료 참조

2-2. 주요 정책 분야

-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등 4개 분야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2개 분야이다.

 <p>청정 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중 발표)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까지) 및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 까지)
 <p>지속 가능한 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p>자원 효율적 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2020년 중)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식별 및 철폐를 위한 논의 실시
 <p>지속 가능한 수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략(2020년 중 마련) △해양 및 항공 부문의 배출권거래제(ETS : Emissions Trading System) 편입 △자율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운송 수단 개발,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연계
 <p>친환경적 농식품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2020년 1/4분기 중 제안)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친환경 제품 생산 촉진 △식품처리 및 소매 분야에서 환경위험 평가 및 친환경 농식품 소비 촉진
 <p>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전략(2020년 3월) 제안 △ 산림 및 해양어업 분야에서 자연 훼손 방지책 마련 △ 산림 조성 및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 [그림2-1]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 분야

2-3. 추진 현황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럽 그린딜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유럽 산업전략(2020. 3), 순환경제 행동계획(2020. 3),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2020. 7) 등이 있다.

■ [표2-1]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수단 추진 현황

시기	내용	정책 분야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투자계획
2020년 3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법안 유럽의회 제출	에너지
	유럽산업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산업
2020년 5월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산업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농식품
2020년 7월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발표	생태계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수송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가. EU 신산업 패키지

- 2020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및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신산업 패키지(산업전략, 중소기업전략, 단일시장정책)를 발표하였다.
- 산업전략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의 탄소중립 지향과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단일 시장, 기후중립 지원, 투자 및 금융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 [그림2-2] 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 [표2-2] 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분야	실행계획
디지털 단일시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시장 이행계획 및 TF 수립 • 지속가능한 디지털 유업을 위한 중소기업전략 채택 • 2021년까지 EU 경쟁법 검토 및 필요시 개정 • 지적권 보호 강화 • 유럽 데이터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이행 가속화 • 디지털서비스법안 개선 • 플랫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글로벌 공정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중 제3국 정부보조금에 대한 백서 발간 • WTO 산업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 국제공공조달규정의 신속한 채택 • 2020년 중 통관절차 강화를 포함한 EU 관세연합 이행계획 마련
기후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유럽에너지데이터 플랫폼 활용 • 청정 철강 및 화학분야 EU 전략 수립 • 범유럽 에너지망 규정(TEN-E) 검토 •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 • 건물의 에너지효율 전략
적극적 순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 실행계획 채택 • 지속가능한 배터리 관련 규정 마련 • EU 섬유전략 • 순환경제에서 소비자의 역할 강화
산업혁신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혁신의 미래에 관한 정책 마련 • Horizon Europe 분야 PPP 추진
기술 및 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직업훈련 어젠다 개정 • 기술인력 유럽협약(European Pact for Skills) 추진 • 디지털교육 시행계획
투자 및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보조금규정 검토 •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개정 • 2020년 중 자본시장 통합을 포함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실행계획 수립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20. 3.10), COM(2020) 102 final, "A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communication-eu-industrial-strategy-march-2020_en.pdf

- 중소기업전략과 관련해서는 EU 경제와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단일시장 이행계획(총 22개 방안)은 회원국간 규제 수준 및 EU 규정 반영 수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

【표2-3】 중소기업전략 3대 분야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과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기업네트워크(EEN)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문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그린딜 혁신을 위한 최소 3억 유로 지원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혁신허브를 통한 기술 지원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접근 지원 • 데이터 접근성 제고 지원
	인력과 인재권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관련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의 AI, 사이버보안 등 분야 역량 강화 • 디지털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론칭
규제부담 축소 및 시장접근 개선	파트너십 및 정책실험을 통한 행정부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스타트업 모범사례 공유 • 중소기업에 정보 제공과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운영(single digital gateway)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지침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지급 감시 강화
	글로벌 시장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FTA 상대국의 장벽 파악 • 신설되는 통상감찰관직을 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 해소
재무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재원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투자자의 위험 분산방안 모색 • 중소기업 기업공개기금(SME IPO Fund)
	유럽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EU, Horizon 기금, 국별 기금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 보조금 규정 단순화 • 유럽 차원의 중소기업 채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이니셔티브 출범
	EU-회원국 간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 중소기업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SME 대사 네트워크 • 전략적 기업가 대사 그룹 출범 • 규제검토위원회와 정기적 대화 실시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20. 3. 10), COM(2020) 103 final, "An 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DC0103&from=EN>

나. 순환경제 행동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순환경제 행동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을 2020년 3월에 발표하였다. 순환경제 행동계획은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자동차, 포장, 플라스틱, 섬유 등 주요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생산 소비, 수거 및 재활용의 모든 단계의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친환경 재활용 가능성을 생산 단

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인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표2-4] 순환경제 행동계획 세부정책의 추진 일정

정책	시기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프레임워크	
-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이니셔티브 제안	2021
- 친환경 전환을 위한 소비자권한 강화 제안	2020
- 그린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기준 및 목표	2021
- 산업 배출지침 검토	2021
- 산업 주도의 공생관계 및 인증시스템 출범	2022
주요 제품 가치사슬	
- 순환전자제품 이니셔티브, 공통 충전기술, 전자제품 반납에 대한 리뷰드	2020/21
- 새로운 배터리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2020
- 폐차 관련 규제 검토	2021
- 폐오일 처리에 관한 규제 검토	2022
-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및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배출 조치	2021
- 섬유전략	2021
폐기물 감소	
- EU 차원의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시스템 및 분리수거 라벨링	2022
- 재활용에 사용되는 위해물질의 추적 및 사용 최소화	2021
- 위해물질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2021
- 패션박 규제 검토	2021
노동, 지역, 도시를 위한 순환경제 작동	
- 직업훈련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지원	2020
- 결속정책기금, 공정전환체제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2020
교차분야 행동계획	
- 순환경제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EU 및 개별회원국 차원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개선	2020
- 탄소제거 인증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2023
- 환경 및 에너지 정부보조금 가이드라인 개정 시 순환경제목표 반영	2021
- 순환경제 목표를 비재무보고에 포함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비용 회계 도입	2021
글로벌 차원의 노력	
- 글로벌 플라스틱협정을 위한 노력	2020
- 글로벌 순환경제동맹 제안	2021
- FTA에서 순환경제목표 주류화	2020
모니터링	
-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선	2021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20), pp. 26-27.

다. 에너지시스템 통합전략

- 에너지시스템 통합전략은 에너지 생산-운반-소비 인프라의 연결 및 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형성 및 심화, 재생에너지원 전기 사용 확대, 재생연료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통합에너지 시스템에 적합한 에너지시장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 [표2-5] 에너지 시스템 통합전략

분야	주요내용
순환경제 형성 및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지대 및 데이터센터의 폐기열 재활용 국경간 전기 및 가스 인프라 연결사업인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를 개선하여 에너지 인프라간 시너지 증대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생성시 농림업 잔여물 및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유인 제공
재생에너지원 전기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전기 발전(發電) 확대 냉난방 장치, 열펌프, 전기자동차 등 건물, 산업, 교통수단의 재생전기 사용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
재생연료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재생수소, 합성연료의 사용 확대 시멘트 생산 등 산업공정에서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sation)를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이산화탄소와 재생수소를 결합한 합성연료 등의 형태로 사용 확대 재생연료 및 저탄소연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여(European system of certification 활용) 시장 활용 및 투명성 제고 저탄소연료 활용 혁신 프로젝트 촉진
통합에너지에 적합한 에너지 시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사용 시 세금 및 부담금이 화석연료나 가스연료보다 높지 않도록 설정하는 등 탈탄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각 '에너지 운반체(energy carriers)'의 가격 외 요소(세금, 부담금 등) 조정 에너지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품질 제고 가정 내 스마트미터기,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기 등 디지털 에너지서비스 지원 에너지시스템의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

라. 수소전략

- 수소전략은 투자, 규제, 시장 조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재생수소 생산 및 활용의 현실화, 시장 형성,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추진 일정이 3단계(2020~24년, 2025~30년, 2031~50년)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재생수소 생산 확대를 통한 탈탄소화와 수소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내 재생수소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략과 함께

‘유럽청정수소연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발족하여 수소전략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2-4. 투자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2020년 1월 발표)을 통해 2030년까지 10년간 최소 1조 유로(한화 약 1,400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5,030억 유로(한화 약 708조 원)를 EU 예산으로 충당하고, 회원국 공동출자로 1,140억 유로(한화 약 160조 원), EU 배출권거래제 기금으로 250억 유로(한화 약 35조 원)를 충당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게 될 지역과 노동자를 위해 공정 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1,430억 유로(한화 약 201조 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 그리고 EU의 통합 금융지원 시스템인 InvestEU의 보증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투자 2,790억 유로(한화 약 392조 원)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InvestEU는 EU 집행위원회 주도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민간 및 공공 투자를 보증해주는 InvestEU Fund, 프로젝트 선별·평가·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InvestEU Advisory Hub, 투자 관련 정보 및 거래 플랫폼인 InvestEU Portal로 이루어진다. InvestEU를 통해 유치한 기금의 최소 30%는 기후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추가로 450억 유로(한화 약 63조 원)를 모집하여 공전전환체계 예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2-5. 임업전망

- 기후변화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개별 국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유엔기후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IPCC특별보고서 등은 기존의 선진국 위주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의 공동대응을 강조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EU의 역할을 유럽 그린딜 구상 단계부터 고려하였고, 외교, 무역, 개발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전세계 탄소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교류시 기후 및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순환경제 동맹’의 제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순환경제 목적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 최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주요국들은 탄소감축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의 약 11조2천억 달러 중 30%인 3조5천억 달러가 친환경 부분에 배정되었다.
- 또한 EU는 지난 5월에 2030년까지 유럽 생물다양성이 본격적인 회복 추세로 전환되도록 자연, 농지, 토양, 산림, 재생에너지, 해양생태계, 담수생태계, 도시, 오염, 침투 외래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관성 있는 ‘범유럽 자연네트워크(Trans-European Nature Network)’ 구축, 영향평가를 거쳐 법적 구속력 있는 EU의 자연보전 목표 설정,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소, 2만5천km 강물 복원, 비료 사용 20% 감소, 30억 그루 식목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복원하는 구체적 조치 실시, 2021년 중국 쿤밍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 도출에 EU가 주도적 역할 담당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EU 집행위는 여러 분야를 구체화해 제안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속 가능 화학 전략, 제8차 환경행동 프로그램, 산림 전략,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이 제안되고, 2021년에는 탄소국경세, 수질·공기·토양에 대한 제로오염 행동계획, 대형 산업시설의 오염 대책 개정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외출 금지, 휴교, 재택근무 등)로 인해 유럽에서도 불가피하게 경제·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일부 EU 회원국과 경제·산업 단체는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EU의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을 완화·연기하거나 심지어 폐

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EU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EU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유럽 그린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의 경제회복 계획에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사항으로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이 EU경제를 단순히 이전의 경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7월 17~21일 열린 EU 특별정상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1조8,243억 유로를 조성하고, 이 중 30%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투자하는 등 유럽 그린딜,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그린딜 분야 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큰 분야인 건물 리노베이션, 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클린 수소경제, 클린 수송(전기차충전소 100만 개 등) 등이 향후 유럽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유럽 그린딜 중에는 EU의 기후·환경 규제를 외국 및 외국 기업이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세다. 이것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일정 비용, 즉 EU의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EU에서 생산할 때 EU의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가격 등)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EU기업은 EU의 엄격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제품 제조 시 비용이 커져 제품 가격이 비싸지만 규제가 약한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제품 제조시 비용이 적어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EU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의 환경 비용을 증가시켜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 중이고 구체적 내용은 2021년 상반기에 제시될 예정이다.
- EU의 그린딜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향후 목재 산업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 그린딜이

일차적으로는 유럽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제협력 체계와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한다면 국제적 룰의 적용범위는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감소 및 포괄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생물 다양성 확보, 자연 생태계 복원 등과 맞물려 산림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다. 또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국가별로 목재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 목재 산업은 무엇보다도 건설과 건축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향후 각국의 건설, 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목재 산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국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친환경 건축 자재와 목조 건축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목조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공 건축 재료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향후 고층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 자재들이 생산될 것이며, 목조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목재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목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국 조림지 조성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및 협력 사업에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정책은 기후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재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도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배출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그린딜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 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목재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